

# 중국신문 소재 신채호 논설의 발굴 연구\*

김주현(경북대)

## 1. 들어가는 말

단재가 중국신문에 논설을 썼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단재가 중국 신문에 글을 썼다는 주장은 많은데 정작 중국신문에 실린 글은 한편도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수많은 연구자들은 중국신문에서 단재의 논설들이 발굴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단재의 중국신문 논설 발굴은 시급한 과제이면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전에도 몇몇 연구자에 의해 단재 논설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최옥산은 “단재가 논설을 실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경탄해 마지않을 일”이라고 하면서도 “아쉬운 것은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당시 『북경일보』에서 단재가 쓴 것으로 확인되는 논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줄로 안다”고 언급했다.<sup>1)</sup> 그리고 김삼웅은 “단재의 1차 북경시대와 1910년대 후반기 그의 사상과 철학, 국제 정세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화보, 북경일보에 쓴 글을 찾아 연구, 분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sup>2)</sup> 그것은 나아가 우리의 언론사, 독립운동사를 새롭게 조명해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단재가 중국신문에 논설을 집필했다는 사실을 십분 인정하지만, 아직도 발굴 성과는 전무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중국신문에 발표된 단재의 논설을 발굴하려고 한다. 그것은 단재 연구, 나아가 한중 근대언론 연구를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연구이다.

## 2. ‘중화보’의 실체—『중화신보』 규명

단재가 『중화보』와 『북경일보』에 글을 쓴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먼저 이러한 주장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단재가 중국 신문에 글을 발표한 것은 여러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

自己의 文章을 어떻게 自負하던지 北京서 賣文糊口하던 때 어느 報館에서 自己原稿中 尋常한 글자 한 字를 고쳤다고 極口怒罵하고는 投稿하기를 斷絶하였다.<sup>3)</sup>

그것은 丹齋가 北京에 있을 때다. 當時의 中國은 大統領에 馮國璋國務總理에 段祺瑞가 있어 治政할 때다. 中國에서 가장 權威 있는 中華報의 社說을 쓰고 生計를 해 나가던 때건만 誤字 一字를 내었다 하여 그날로 斷然 執筆을 拒絕하였다.<sup>4)</sup>

차례대로 정인보, 신석우의 언급이다. 중국 신문에 글을 쓴 것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사람은 바로 정인보이다. 정인보는 1913년 상해에서 신채호를 만나 교류하였으며, 이후 “上海서故 羅喆 先生을 悼祭한 四言文 一編을 보”<sup>5)</sup>었다고 했다. 나철의 자결이 1918년 4월이니 그

\* “이 논문은 2010년도 동일문화장학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최옥산,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 인하대 박사논문, 2003, 39면.

2) 김삼웅, 『단재신채호평전』, 시대와창, 2005, 199면.

3) 정인보, 「단재와 사학」, 『동아일보』 1936.2.28., 하, 459면.

4) 신석우, 「단재의 ‘의’자」, 『신동아』, 1936.4., 하, 465면.

이후 보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정인보는 「단체와 사학」을 쓸 정도로 단체와 밀접한, 그리고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런 점에서 그의 진술은 신빙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신석우는 다른 어떤 이보다 단체 글의 중국 신문 게재건에 대해 소상히 기술했다. 그리고 서세충의 글은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것이 된다.

그런데 신석우의 글은 과연 신뢰할 만한가? 신석우와 신채호는 1913년 상해 동제사 활동에 참여하였고, 또한 1917년 7월 「대동단결선언」 발기에 참여하였다. 신석우는 1919년에 ‘상해고려교민친목회(上海高麗僑民親睦會)’를 조직하고 활동하였으며, 1919년 상해임시정부 창립 당시 경기도 대의원으로서 활동하였다. 단체는 1914년부터 주로 북경에 거주하였으며, 1919년 3월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이후 상해로 가서 4월 10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에 참가하였으며, 당시 신석우와 함께 활동하였다. 신석우와 신채호의 친밀함은 1919년 상해에서 찍은 신채호, 신석우, 신규식 3인의 사진이 잘 말해준다.<sup>6)</sup> 신석우는 앞의 글에서 신채호와 교분으로서나 戚分으로서나 가장 가깝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명했다. 그는 특히 1919년 상해에서 같이 활동을 하였기에 단체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신석우는 단체가 “대통령에 풍국장, 국무총리에 段祺瑞가 있던” 때 중화보에 활동했다고 기술했다. 최옥산에 따르면, “풍국장(1859-1919)은 1917년 7월 대리총통에 추대되었다가 1918년 10월에 皖係 군벌에 의해 물러나며, 환계군벌 수령 단기서는 풍국장이 대리 총통으로 있는 기간 내내 국무총리직을 담당하였”으므로 “단체가 중국 신문에 글을 실던 시기를 일단 1917년 7월부터 1918년 10월 사이로 볼 수 있다.”<sup>7)</sup> 이를 뒷받침해 줄 신뢰할 만한 정보가 발견되었다.

又日을 期하여 新大韓 主筆 申采浩 先生을 訪問하다. 先生은 庚戌政變 後로 海外에 亡命하여 至今까지 支那新聞社에 잇섯다.<sup>8)</sup>

혁신공보 대표단은 1919년 12월 단체를 방문하였다. 그리고 단체로부터 논설 「우리의 유일 요구」를 받고 그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단체가 “至今까지 支那新聞社에 잇섯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라는 시점은 『신대한』 이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 단체가 상해에 오기(1919년 3월) 이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9)</sup> 그렇다면 이 문맥은 궁극적으로 ‘지금까지 북경에서 중국신문사’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신석우의 증언과도 합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신석우 증언의 신빙성을 높인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1918년경 단체가 중국신문사에 있었던 것이 확실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나신문사’, 또는 ‘북경 어느 보관’은 어느 신문을 의미하는가? 정인보와 신석우의 증언 가운데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尋常한 글자 한 字를 고쳤다고 極口

5) 단체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체신채호전집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92면.

6) 한편 홍명희는 ‘域內 단체의 知舊’로 신석우, 신백우, 변영만, 서세충, 문일평, 정인보, 최운동, 한기약, 박돈서, 홍희식 등을 들었다. 「상해시대의 단체」(『조광』, 1936.4) 및 『단체전집』 하, 474면.

7) 최옥산, 「문학자 단체 신채호론」, 인하대 박사논문, 2003, 38면.

8) 「대세의 회운-신대한 주필 신채호 선생」, 『혁신공보』 50호, 1919.12.25.

9) 현순 목사의 전기에 따르면, 단체는 1919년 3월 25-6일경 만주에서 상해로 왔다. 단체는 1918년 11월(양력 12월)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는데, 아마도 1919년 12월 만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체가 북경에서 만주로 가기 이전, 즉 1918년 11월 이전까지 중국신문사에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곳에서 상해로 바로 간 것으로 보인다(「독립운동가자료-현순의 초기- 3·1운동(1879~1919)」, <https://search.i815.or.kr>).

怒罵하고는 投稿하기를 斷絶하였다” 및 “誤字 一字를 내었다 하여 그날로 斷然 執筆을 拒絕하였다”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 글자로 인해 투고 내지 집필을 거절하였다는 대목이다. 정인보의 증언보다 신석우의 증언이 구체적이란 점에서 ‘북경 어느 보관’은 ‘중화보’로 쉽게 설명된다. 그러한 것은 서세충의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北平에서 『중화보』에 논설을 썼던 것으로 단재의 才筆을 중국인에게 알리운 바 되어 同報는 ‘조선 사람 申丹齋의 논설로 말미암아 聲價가 높아졌었다’ 한다.<sup>10)</sup>

단재도 일찍 북경에서 중국 모신문사에 논문을 써서 보내고 그 논문으로 인하여 그 신문의 부수가 4, 5천부나 증가되어짐을 따라서 윤필로 다시 말하면 원고료가 예외로 후하였다. 다른 신문사에서도 그의 논문을 후한 원고료로 살려고 하였지만 그가 불허할 뿐만 아니라 그 쓰던 신문에도 글 몇 자를 고쳤다는 것을 잘못이라 하여 다시 투고치 아니하고 생활의 고초를 감수하였다.<sup>11)</sup>

위 진술은 각각 서세충, 원세훈의 것이다. 서세충은 ‘『중화보』’라고 하여 그 신문명을 분명히 했다. 그가 같은 글에서 잡지 『天鼓』를 “『天鼓』”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 『중화보』는 신문명이 된다. 원세훈은 ‘북경 모신문’이라 하였는데, 그것은 정인보의 ‘북경 어느 보관’과 일치한다. 그는 1919년 상해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단재와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sup>12)</sup>

한편으로 북경에서 권위있는 신문 <중화보(中華報)>에 사설을 썼다. 당시 선생의 사설로 인하여 <중화보> 판매 부수가 증가하였다 한다. 선생은 이 원고로 생활을 유지하였으나, 그 후 글자를 한 자 틀리게 실었다 하여 단연 집필을 거절하였다. 그것은 대단한 글자가 아니라 ‘의(矣)’자라는 글자였는데도, 조선사람에 대한 모욕이라고 하여 분개하였다. <중화보> 사장이 사과하러 왔으나 꾸짖어 돌려보냈다. 또 한번은 <북경일보(北京日報)>에 논설을 발표하였다. 그 3회째 연재 중에 원문을 두 자 교정하였다 하여 분노 다시 집필치 않았다.<sup>13)</sup>

이 글은 단재의 생애와 활동을 처음 구체적으로 기술한 김영호 글의 일부이다. 김영호는 1918년 단재의 활동에서 “중화보 및 북경일보에 논설 발표”를 언급했다. 김영호는 이후 『단재신채호전집』 하권 「단재연보」에서 “《中華報》에도 많은 논설을 집필…(중략)…《북경일보(北京日報)》에 논설을 발표하던 중 3회째 연재 중에 원문 글자 두 자 교정하였다 하여 분노하여 다시는 글을 쓰지 않았음”이라 하여 단재가 『중화보』, 『북경일보』에 글을 연재한

10) 서세충, 「단재의 천재와 凝滯없는 성격」, 『신동아』, 1936.4., 하, 464면.

11) 원세훈, 「단재 신채호」, 『삼천리』, 1936.4., 별집, 395면.

12) 일본측 문서에 따르면, 원세훈은 “1919년 5월 국민회(國民會)로부터 상해에 파견, 그해 7월 돌아왔다.”고 되어 있다. 「주요 不逞 조선인(鮮人)에 대한 조사보고의 건」(『朝鮮獨立運動史』 36, 1921.12.10), 자료번호: 9-PS0006-065(<https://search.i815.or.kr>)

13) 김영호, 「단재의 생애와 활동」, 『나라사랑』 3, 1971, 78면. 필자는 단재의 북경일보 글 게재와 관련하여 김영호 교수와 2010.5.25 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그는 어떤 자료를 보고 한 것 같은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실을 일반화했다. 김영호의 주장 이후 단재전기 및 단재연구에서 이것은 확고부동한 사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sup>14)</sup>

그런데 단재의 옥사 당시 그를 추모하는 글에 『북경일보』를 언급한 사람은 전혀 없다. 김영호의 글을 살펴보면, 『중화보』 관련 내용은 신석우와 서세충의 글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북경일보』 관련 부분은 원세훈의 내용을 잘못 정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은 ‘북경의 모신문’이 ‘북경일보’로, “글 몇 자를 고쳤다”는 것이 “3회째 연재 중에 원문을 두 자 교정”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으로 보인다. 원세훈의 글을 정인보의 글과 비교해보면 비록 어느 보관, 모신문사라고 하였지만 궁극적으로 신석우의 증언 내용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한 글자’가 ‘몇 자’, 또는 ‘3회째 두 자’로 조금 과장 또는 운문된 것이다. 그렇다면 中華報는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중화보의 실체를 중화일보, 중화시보라는 주장이 있다.

한편으로는 북경의 중국인 신문인 중화일보(中華日報)에 집필하여 한·중(韓中)의 연합 투쟁을 고취하였다.<sup>15)</sup>

그의 言論活動은 繼續이 되어 金昌淑 등과 같이 <天鼓>라는 漢文新聞을 發刊하고 上海에서 發行되던 獨立新聞에서 델볼을 들었으며 이후 北京으로 건너가 <中華日報>에 論설을 쓰기도 했다.<sup>16)</sup>

그는 1915년에 제정 로씨야의 해삼위로부터 우리나라 북경에 옮겨와 역사를 연구하는 한편 문학창작사업에 종사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신문에 론문들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중화시보(中華時報)>>의 가장 열정적인 투고자로 인정받았다.<sup>17)</sup>

그러나 당시 “中華報”란 이름의 신문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중화일보”, “중화시보”가 언급된 것이다. 중화보(일명 중화일보)는 “1904년 2월 7일 창간되어 1906년 9월 29일 폐간되었다”<sup>18)</sup>는 점에서, 중화시보는 香港에서 발간된 것(1939-19??)과 上海에서 발간된 것(1946-1949)이 있는데, 시기 및 장소로 볼 때 신석우가 말하는 중화보와는 거리가 있다. 중화일보, 중화시보도 단재와는 무관한 신문이다.

14) 임중빈의 『선각자 단재 신채호』(충정출판사, 1986), 김삼웅의 『단재신채호평전』(시대의창, 2005) 등의 전기와 신용하의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한길사, 1984), 김병민의 『신채호문학연구』(아침, 1988), 최옥산의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인하대 박사논문, 2003) 등의 연구서가 대표적이다.

15) 유광열, 『기자 반 세기』, 서문당, 1968, 234면.

16) 유자명, 「신채호」, 『독립기념관소장본』, 자료번호 3-011973-000, 단재전집, 206면.

17) 허룡구, 「걸출한 조선족 학자 신채호」, 『조선족 100년 사화』, 료녕인민출판사, 1985, 241면.

18) 최옥산은 『全國中文期刊聯合目錄』 202면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최옥산 논문, 38면)했으나, 이는 오류가 아닌 가 한다. 『황성신문』 1909년 11월 24일 기사에는 “中華報 主筆 拘留 淸國 中華日報는 伊藤公 遭難에 對하여 無禮한 言論을 게재하였다 故에 主筆은 拘留되고 日報는 停刊되었다더라”라는 기사가 있다. 이로 보아 1906년 9월 29일 이후 다시 발간되었다가 1909년 11월 24일 혹은 그 이후 폐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외에도 중화일보는 上海에서 발간된 것(1926-1928), (1932-1945), 波累(毛裏求斯)에서 발간된 것(1932-1969), 天津에서 발행된 것(1942-1948), 古晉(馬來西亞)에서 발간된 것(1945-2003), 臺南(臺灣)에서 발간된 것(1946- ), 屯溪(安徽)에서 발간된 것(1946-1949), 臺北에서 발간된 것(1948-1949), 曼谷(泰國)에서 발간된 것(1960- ) 등이 있다. 이상은 중국국가도서관의 서지사항을 참고한 것임.

한편 비교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상해에서 창간된 『중화신보』라는 신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1917년부터 이 신문의 북경판 주필이 단재가 영향을 받은 저명한 아나키스트 오치휘였다는 점이다. 이 신문이 단기서 정부에 항의했다는 명의로 폐간된 것이 앞에서 입증한 단재가 중국 권위지에 글을 실은 시간과도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혹시 『중화신보』가 『중화보』로 와전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19)</sup>

최옥산은 북경판 『중화신보』에 주목을 하였다.<sup>20)</sup> 물론 당시 『중화』라는 잡지도 있었으나 “報”는 신문을 일컫기 때문에 범위에서 벗어난다. 최옥산의 주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중화보’가 ‘중화신보’라는 점이다. 그것을 와전이라 했는데, 한국에서는 황성신문을 황성보, 국민신보를 국민보라 했듯이 중화일보, 중화신보를 통상 중화보라고도 했다.

정학회(政學會)의 張耀曾, 谷鐘秀 등은 북경에서 <中華新報>를 창간하였다. 張耀曾은 스스로 사장을 맡고 張季鸞을 총편집장으로 초빙했다. 그리고 康心如는 경리를, 周太玄과 王光祈는 편집장을 각각 담당했다. 그들은 皖(安徽省)系 군벌정부를 비판하고 규탄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政學會의 張耀曾, 谷鐘秀等 在京創刊《中華新報》, 張自任社長, 聘請張季鸞任總編輯, 康心如爲經理, 周太玄, 王光祈等任編輯, 對皖系軍閥政府, 時予譏彈)<sup>21)</sup>

비록 최옥산이 북경 『중화신보』, 즉 『북경중화신보』의 주필을 오치휘라고 잘못 말하였지만, 중화보를 북경 『중화신보』로 간주한 것은 적실한 판단이다.<sup>22)</sup> 『북경중화신보』는 1916년 9월 1일(?) 장계란에 의해 창간되었다.<sup>23)</sup> 이 신문은 단기서 정부의 흑막을 규탄 폭로함으로써 1917년 6월 4일부터 10월 8일, 1918년 9월 25일부터 1920년 12월 31일까지 발간 중지되었으며, 1921년 1월 1일 속간이 되어 1923년 12월 9일까지 발간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신문은 단기서 정부의 흑막을 비판함으로써 ‘洛陽紙貴’가 되었고 더불어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이다.<sup>24)</sup> 단재와 관련된 증언들도 단재의 논설로 말미암아 “聲價가 높아졌었다”(서세충), “중국민을 열광”(신석우), “발행부수가 4,5천부나 증가”(원세훈) 등의 언급을 볼 수 있다. 중화신보가 중국 국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았다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19) 최옥산, 앞의 논문, 38~39면.

20) 그녀의 연구로 인해 『중화보』는 대체로 『중화신보』로 귀환되고 있다. 김삼웅, 「단재 신채호의 언론사상과 언론투쟁」, 『단재 신채호의 삶과 투쟁 그리고 현재적 의의』(한국언론재단 및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 단재 신채호 순국 72주년 기념 심포지움 발표집, 2008.4.1, 58~59면), 윤병석,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79면.

21) 徐鑄成, 『報人張季鸞先生傳』, 新華書店, 1986, 61면.

22) 이 신문은 상해 『중화신보』와 구분하기 위해 『북경중화신보』라 이름하였지만, 흔히 “북경 <중화신보>”로 통했다.

23) 1902년에도 북경에서 중화신보 발행계획이 있었다. 1902년 1월 28일 황성신문에 기사에는 “袁世凱氏가今回北京에서 中華新報라 하는 半官報新聞을 發刊코져 하야 胡橋堯으로 하야곰 計畫케 하논디……”라 하였다. 신문이 발간이 성사되었는지 확인이 어렵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발간 자체가 어려웠거나 발간되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24) 같은 책, 60~67면.

### 3. 방법론 탐색—‘矣’에 대한 접근

다른 나라 신문에서 그것도 필명으로 발표된 신문 사설에서 어떤 이의 글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모험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버려둘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있으면 있는 그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밝히면 되는 것이다. 일단의 가능성은 『중화신보』를 통해서 얻은 셈이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형편이다.

그 誤字란 것도 文意를 傷하는 誤字가 아니라 「矣」字였건만 朝鮮사람에 對한 優越感에서 나온 行動이라 하여 數次 馬車를 타고 謝罪 온 中華報 社長을 叱責하고도 永永 執筆치 않았다.

신석우는 단재 글을 찾는 하나의 열쇠를 제시해 두었다. 그것은 “矣”자 한 글자이다. 만일 그 글자가 두 자 이상이라면 보다 가능성은 커지겠지만 달랑 한 글자이다. 그래도 이것은 없는 것보다 얼마나 값진 열쇠이라. 이미 언급된 내용을 통해 단재의 글을 규명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襄社長이 逝去하자 이를 弔하는 社說(筆者 某氏)을 大韓每日申報에 掲載하되 題를 「如喪考妣」라 하였다. 이 「如喪考妣」라 하는 文字는 古昔에 聖君堯帝가 도라간 때에 쓰든 文字라 하여 一般 讀者層에서의 質問과 非難이 不絶하였다. 同申報社에서는 이를 辯解하는 社說 三回를 連載하였으되 一般의 誤解는 조금도 풀리지 못하고 騷亂하였었다. 이 어려운 때를 當하여 丹齋는 問題의 社說에 對한 辯解文을 社說로 쓴 것이니 그의 長한 考證學的 筆鋒은 一般讀者의 懷疑를 氷解케 하였다. 青年丹齋는 이 論說 一篇으로 그의 深奧한 學識과 그 不世出의 文才를 世上에 알리게 된 것이었다.<sup>25)</sup>

서세충에 따르면, 단재는 “如喪考妣”에 대한 변해문을 『대한매일신보』 사설에 썼다. 그것이 ‘考證學的 筆鋒’이라는 사실인데, 달리 글쓰기의 방법론에 해당되는 셈이다. 이러한 증거들, 즉 발표지, 내용 및 방법을 통해 아래 글의 저자를 확인할 수 있다.

如喪考妣字는 古今 文人史家가 賢相의 喪에도 用호며 哲人의 喪에도 用호며 名將의 喪에도 用호며 循吏의 喪에도 用호얏스니 不可枚舉오 爲先 其壹貳를 舉컨대 後漢書 段 熲傳에 聞경卒皆哀慟如考妣와 飲氷集 加富爾傳에 伊太利 獨立 大政治家 伯爵 加富爾卒 上自王 下至士大夫 如喪考妣가 是라. 襄씨의 韓國同胞의 愛敬호 必 됨이 壹賢相 壹循吏에 不下호은 江湖諸君子의 公認호 必인즉 本報 云云이 實로 不可호이 無호거날 惜乎라 彼 魔報記者가 舜典 壹篇만 讀過호 村學究의 知識으로 得得히 自躍호야 何等의 大機會나 得호 듯이 壹桴壹鼓로 本報를 無數히 侵辱호며(『大韓每日申報』 1909. 6. 27)

이 글은 대한매일신보 논설 「惜乎라 禹龍澤氏의 國民 大韓 兩魔報의 鷹犬됨이여」이다. 서세충의 증언을 통해 무서명인 위 글이 단재의 글로 입증되었다. 서세충의 증언은 단재의 활동을 살피는 데 대단히 유효한 근거가 되었다.

신석우는 “그 誤字란 것도 文意를 傷하는 誤字가 아니라 「矣」字였”다고 지적했다. ‘의’자

25) 서세충, 「단재의 천재와 凝滯없는 성격」, 『단재신채호전집』 하, 464면.

야 말로 문미에 붙어 문장을 마무리하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글자이다. 그러나 신석우는 글의 제목마저 「丹齋와 ‘矣’字」라고 썼다. ‘矣’는 그만큼 인상적이며, “尋常한 글자 한 字를 고쳤다”(정인보), “글 몇 자를 고쳤다”(원세훈)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다. 이것은 충분히 유효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단재 논설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更正 昨日時評 大可安念矣之矣字 誤排爲兩字 特此更正(「國會問題」, 1918.5.20)

이 구절은 1918년 5월 20일 「국회문제」라는 시평 뒤에 실려 있다. 이 시기 이 신문에 논설은 매우 띄엄띄엄 쓰였고, 시평이 사실 또는 논설의 역할을 했다. 전날 시평에서 “大可安念矣”가 옳은데 그만 “大可安念一笑”로 두 글자를 잘못 배열하여 특별히 이를 고친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이다. “크게 안심할 수 있다”는 한 글자의 오류로 인해 “크게 안심하고 한번 웃을 수 있다”로 바뀌었지만 의미전달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 원문은 아래와 같다.

據政府方面之辯解此次出兵條件以防敵爲目的以敵人東犯爲實行之日以作戰爲範圍以歐戰終了爲限期果如所云之簡單明瞭則國人大可安念一笑然而未易言也(「政府之辯明」, 1918.5.19)

이것은 5월 19일 실린 「정부의 변명」이라는 시평이다. ‘矣’라는 글자를 ‘一笑’로 입력함으로써 문맥상 의미는 별 차이가 없지만 신문사는 정정보도문을 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단재가 이 신문에 논설을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이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 근거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의’를 ‘일소’로 고쳤다면 저자로서는 화낼 일은 당연하다. 문맥의 의미상 별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신문사에서 정정보도문을 내었다는 것은 달리 저자의 강력한 항의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즉, 저자는 ‘矣’자로 인해 신문사에 강력하게 항의하였으며, 그래서 신문사는 정정보도문을 내어 사과를 한 셈이 된다. 신석우가 유독 ‘의’자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여상고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석우가 제목으로까지 내세운 것은 그만큼 인상적이고 강렬하게 인식했다는 반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의>자 논란이 된 글은 박의 「정부의 변명」이다.

#### 4. 時評 기자 ‘博’의 글들

그것은 한 글자이기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당시 앞에서 문제가 된 「國會問題」의 저자 <博>의 글은 그 글의 이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적지 않게 발표되었다. 1917년 7월부터 1918년 10월까지 이 신문의 사설 격인 <논설>과 <시평>란의 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번	날짜	분류	저자	제목	비고
	1917.11.13	時評	博	具體條件	6.3후 11.13
	1917.11.14	時評	博	日本之滿足	

1917.11.15~18	論說	靜觀	動物政喻論	4회 연재
1917.11.23	時評	博	今後之大局	
1917.11.24~25	論說	靜觀	對於段總理辭職之感言	2회 연재
1917.11.28~29	論說	馥炎	政力原論	2회 연재
1917.12.1	時評	博	王內閣	
1917.12.3	時評	是	和平	
1917.12.9~10	論說	靜觀	戰與和	2회 연재
1917.12.25	論說	博	雲南起義紀念日感言	
1918.1.1	時評	是	新年祝語	
1918.1.7	時評	博	疫警	
1918.1.24	時評	博	尾崎質問	
1918.2.5	時評	博	特赦帝制犯	
1918.2.16	論說	靜觀	國人應有覺悟之一日	
1918.2.18	時評	是	兩法公布	
1918.2.19	時評	博	敢問	
1918.3.7	時評	博	可令元首卸責乎	
1918.3.24	時評	博	第三段內閣	
1918.3.28	時評	是	張敬堯督湘	
1918.4.8	時評	是	國會紀念	
1918.5.11	時評	博	哀語(一)	
1918.5.12	時評	博	哀語(二)•商界大風潮	
1918.5.13	時評	博/滄	哀語(三)/留東學生回國	
1918.5.14	時評	博	共同出兵可以已矣•留學生歸國	
1918.5.15	時評	博	請停戰	
1918.5.16	論說	靜觀	國家之眞詮	
1918.5.17	時評	博	條件簽字	
1918.5.18	時評	博	要求宣布	
1918.5.19	時評	博	政府之辨明	
1918.5.20	時評	博	國會問題	‘矣’자 更正 보도
1918.5.21	時評	是	盍反省	
1918.5.22	時評	博	學界請願誌盛	
1918.5.23	論說	靜觀	讀王船山宋論第九卷第三篇感言	
1918.5.24	時評	博	讀教育部布告	
1918.5.25	時評	協	歡迎日本議員團	
1918.5.26	時評	博	必要與活用	
1918.5.27	時評	博	亡種	
1918.5.28	時評	博	宜興人	
1918.5.29	論說	靜觀	黎伯之政府統治論	
1918.5.30	時評	博	借款	
1918.5.31	時評	博	軍事協定成立	
1918.6.1	時評	博	和戰非今日之問題	
1918.6.2	時評	博	一線之希望	
1918.6.3	時評	博	留學生問題	
1918.6.4	時評	博	徐又錚	
1918.6.5	論說	靜觀	韓非子說林四則今證	
1918.6.6	時評	博	不從命則計之•袁世凱氏忌日	
1918.6.8	時評	博	姑言戰	
1918.6.9	時評	博	借款用途	
1918.6.10	時評	博	論陝亂	
1918.6.11	時評	博	三星期與二十年•嗚呼選舉	

1918.6.12	時評	博	國會解散日	
1918.6.13	時評	博	非誤解也有所不解也	
1918.6.16	時評	博	槍斃陸建章	
1918.6.17	時評	博	日本出兵	
1918.6.18	時評	博	再論陸建章案•兩星期	
1918.6.19	時評	博	道路之言	
1918.6.20	時評	博	借款政策	
1918.6.21	時評	博	政府之責任	
1918.6.22	時評		嗚呼舊議員•加速度之拍賣	
1918.6.23	時評		哀選政	
1918.6.25	時評		悲觀	
1918.6.26	時評		誰之罪	
1918.6.27	時評	博	商人心理	
1918.6.28	時評	誤	吾不信	
1918.6.29	時評	博	斷送精光	
1918.6.30	時評	博	經略使•廣州文字獄	
1918.7.1	時評	是	去年今日	
1918.7.3	時評	博	權力與正義	
1918.7.4	時評	博	再論陝事	
1918.7.5	時評	博	誰管老百姓	
1918.7.7	時評	博	幣制墊款•一半	
1918.7.8	時評	是	借款尚可辯護乎	
1918.7.9	時評	博	轉求諸將軍	
1918.7.10	時評	博	三萬萬•問新議員	
1918.7.11	時評	博	賣之限度	
1918.7.12	時評	博	克復北京紀念日	
1918.7.14	時評	博	回頭是岸	
1918.7.15	時評	博	政府與報界	
1918.7.18	時評	博	出兵	
1918.7.19	時評	博	南北覺悟之好機	
1918.7.20	時評	博	陸榮廷魚電	
1918.7.23	時評	博	中國人之出兵觀	
1918.7.25	時評	博	論選舉	
1918.7.26	時評	博	論虹口事件	
1918.7.27	時評	博	美國借款方針•總統門題	
1918.7.28	時評	博	嗚呼中國之悲運	
1918.7.30	時評	博	真受不了	
1918.7.31	時評	博	誤國至此	
1918.8.1	時評	博	滿洲里出兵	
1918.8.2	時評	誠	實行協約•督軍專制	
1918.8.4	時評	博	日美與遠東	
1918.8.5	時評	博	日本出兵宣言	
1918.8.9	時評	博	策略家之成績	
1918.8.11	時評	博	要新國會何用	
1918.8.12	時評	博	敬告新議員	
1918.8.15	時評	博	日本之都會暴動	
1918.8.16	時評	博	日本出兵	
1918.8.17	時評	博	政府之罪	
1918.8.18	時評	博	徐又錚	
1918.8.23	時評	博	尊重法律•少數	

1918.8.25	時評	博	讀吳將軍等馬電	
1918.8.30	時評	博	片面的理由	
1918.8.31	時評	博	吳佩孚儉電	
1918.9.4	時評	博	選舉總統	
1918.9.5	時評	博	祝徐世昌君	
1918.9.6	時評	翔	湯化龍	
1918.9.7	時評	博	大局之危機	
1918.9.10	代論		對於金券發行之痛言	疑問投稿
1918.9.11	時評	博	解決時局•體卹	
1918.9.12	時評	博	參觀起立	
1918.9.13	時評	博	論解決時局	
1918.9.14	時評	博	再爲東海一言	
1918.9.21	時評	博	再論解決時局	
1918.9.22	時評	博	日本政變感言	

『북경중화신보』는 현재 1916년 12월 1일(90호)부터 2월 1일(143호), 1917년 3월 11일(181호)부터 1917년 6월 3일(264호), 1917년 11월 13일(299호)부터 1918년 9월 24일(599호), 1921년 4월 1일(665호)부터 5월 31일(723호), 그리고 1923년 12월 9일(1605호)이 남아 있다. 1916.9.1~1916.11.30(1~89호), 1917.2.2~3.10(144~180호), 1917.10.9<sup>26)</sup>~11.12(265~298호), 1921.1.1~3.31(600~664호), 1921.6.1~1923.12.8(724~1604호)는 신문이 소실된 상태이며, 1917년 6월 4일부터 10월 8일까지 휴간, 1918년 9월 25일부터 1920년 12월 31일까지 휴간되었다. 그러므로 1917년 7월부터 1918년 10월까지 신문 현황은 실상 1917년 11월 13일부터 1918년 9월 24일까지 해당된다. 이 시기의 중화신보의 논설 또는 시평은 위와 같다. 우선 저자의 필명으로 靜觀, 馥炎, 博, 是, 滄, 協, 謔, 滄, 誠, 翔 등을 확인할 수 있다. 靜觀은 胡政之(1889~1949)이며, 『중화신보』에 관여하여 일찍부터 논설을 발표했다.<sup>27)</sup> 특히 그는 『북경중화신보』 총 편집을 맡은 장계란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그런 인연으로 장계란과 함께 활동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장계란은 ‘少白’이란 필명으로 논설을 발표하였다. 복염 역시 일찍부터 논설을 발표해왔지만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1917년 상반기 논설 저자로 夢公이 등장하는데, 이는 徐傳霖(1879~1958)의 필명<sup>28)</sup>으로 보인다.

박의 글은 『북경중화신보』에 「悲蜀難」(1917.5.1)이 처음 나오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1917년 11월 13일 두 번째 글 「具體條件」 이후 본격 등장한다. 그는 이 신문의 정간 직전인 1918년 9월 22일까지 논설 1회(1편), 시평 90회(101편:하루 2편 발표된 것이 모두 11차례) 등 총 91회에 걸쳐 102편의 글을 실은 아주 비중있는 인물이다.<sup>29)</sup> 그리고 是는 7회이

26) 중국쪽 자료는 10월 9일 속간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연구자는 무창봉기가 있었던 쌍십절(10월 10일)에 속간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그래도 이 논문에서는 중국쪽 추정을 따랐다.

27) “政之先生 每次歸館後 常以「靜觀」筆名 撰寫通信稿 文章觀察深刻……”(陳紀澄, 『報人張季鸞』, 臺北:文友出版社, 1957, 66면).

28) “徐傳霖 字夢巖 邑人尊稱其為“夢公” 廣東省和平縣下車鎮石含村人 生於1878年 前清秀才 京師政法學堂畢業後 留學日本京都政法大學 …… 曾創刊《中華新報》任主筆 …”(「近代名人徐傳霖故居」, <http://space.sznews.com/?10140441>).

29) 상해에서 발간된 『중화신보』에 <博>의 글이 17편 실려 있다. 「宣戰問題」(1917.8.1), 「良知之呻吟」(8.2), 「絕望」(8.3), 「帝孽世界」(8.4), 「段內閣之基礎」(8.5), 「嗚呼剝奪公權之國民」(8.6), 「中國人之大患」(8.7), 「論六日命令」(8.8), 「段內閣之成績」(8.9), 「兵諫」(8.10), 「時局痛言」(8.11), 「協約國之輿論」(8.12), 「忠告政府黨」(8.13), 「今日宣戰」(8.14), 「對德與宣戰」(8.15), 「雲南之宣言」(8.16), 「善戰後之惡政」(8.17) 등이다. 이 시기 『북경중화

며, 나머지 滄, 協, 諛, 滄, 誠, 翔 등은 모두 1회 시평을 발표하였다. 博은 『중화신보』에 수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그가 누구인지 쉽게 파악되지 않지만, 신석우의 진술을 믿는다면 단 재임이 분명하다.

## 5. 증언을 통해 본 博과 단재의 일치 유무

기존 증언들 가운데 가장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신석우의 증언이다. 그의 진술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인 <矣>자 논란은 아주 공교롭게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지 않다.

그 誤字란 것도 文意를 傷하는 誤字가 아니라 「矣」字였건만 朝鮮사람에 對한 優越感에서 나온 行動이라 하여 數次 馬車를 타고 謝罪 온 中華報 社長을 叱責하고도 永永 執筆치 않았다.

이로 因하여 中華報의 販賣部數가 急速度的으로 내려갔다는 것만으로도 丹齋의 社說이 얼마나 當時 中國民을 熱狂시키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고도 돈을 爲해서 執筆을 應諾한 것이 朝鮮사람들의 志操를 깨트린 것처럼 가깝 닦친 丹齋였다. 丹齋에게 關한 것은 이 한 마디로 마친다. 그것은 이 짤막한 逸話가 그 를 全的으로 表現하기 때문이다.<sup>30)</sup>

위의 증언을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신석우는 단재가 글을 쓴 시기가 “大統領에 馮國璋國務總理에 段祺瑞가 있어 治政할 때”, 즉 1917년 7월 1일부터 1918년 10월 10일 사이라고 했다. 박이 처음 글을 발표한 것은 1917년 5월 1일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1917년 8월 1일에서 1918년 9월 22일까지이다. 특히 논란이 되는 <의>자는 1918년 5월 19일 보도된 글이다. 그리고 ‘謝罪’라는 부분은 “경정기사”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

신보』는 정간중(1917.6.4~10.9)이었으며, 따라서 『북경중화신보』 기자들이 상해 『중화신보』에서 활동한다. 이에 대해 「編輯部同人啓事」(『중화신보』, 1917.7.30)에서 “작년 본보를 창간했던 제 군자들이 서로 북상하여 일시에 사무 볼 인제가 부족한데…지금 다행히 제 군자가 속속 남쪽으로 와서 동인으로 서로 도와 직무를 교환했다(去年本報創起諸君子紛紛北上一時社務乏人…今幸諸君子續續南來經同人相懇交換職務)”라고 했다.

장계란은 『북경중화신보』 창간시부터 少白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다가 1917년 6월 3일 정간 이후 사라졌다가 『중화신보』에 1918년 1월 1일부터 ‘記者’, ‘一葦’ 등의 필명으로 신문 중간사인 1926년 1월까지 등장한다. 특히 博과 함께 활동을 했던 老龍은 1916년 11월 5일부터 1917년 5월 29일 『북경중화신보』에 등장하다가 1917년 7월 31일부터 1919년 7월 1일까지 『중화신보』에 등장한다. 馥炎은 1916년 12월 1일부터 1917년 11월 29일까지 『북경중화신보』에 등장하였으며, 1918년 3월부터 1921년 1월까지 『중화신보』에 활동을 한다. 한편 夢公은 1915년 10월 10일 창간부터 1916년 7월 9일까지 『중화신보』에 등장하다가 1917년 4월 11일, 14일 『북경중화신보』에 등장했으며, 墨蓀은 1916년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중화신보』에 등장하다가 1916년 12월 4일부터 1917년 3월 27일까지 『북경중화신보』에 등장한다. 靜觀 역시 1917년 7월 24일에서 30일까지 『중화신보』에 활동하다가 1917년 11월 24일부터 1918년 6월 5일까지 『북경중화신보』에 등장한다. 두 신문의 기자 교류가 활발했으며, 특히 1917년 6월~10월 『북경중화신보』의 정간으로 老龍과 博이 잠시 동안 『중화신보』에 시평을 발표했다. 이 시기 장계란의 필명은 보이지 않으나 胡政之의 필명(靜觀)이 보이며, 당시 『중화신보』의 주필이 吳雉暉였다는 점에서 博과 張季鸞, 胡政之, 老龍 등의 관련성도 엿보인다. 이후 『중화신보』에 博의 글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는 1917년 10월 9일 『북경중화신보』가 다시 발간된 후 그 신문에 전념하다가 1918년 9월 25일 신문 정간과 더불어 신문사를 완전히 떠난 것으로 보이며, 1921년 4월 이후 『북경중화신보』(665~723호, 1605호)에 어떤 자취도 보이지 않는다.

30) 신석우, 앞의 글, 하, 465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재가 중화보에 여러 편의 글을 발표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여러 군데 포착된다. 중화보에 논설을 쓴 기간이 짧지 않을 거란 말이다. “단재의 才筆을 중국인에게 알리운 바 되어 同報는 조선 사람 申丹齋의 논설로 말미암아 聲價가 높아졌었다”는 이야기나 “丹齋의 社說이 얼마나 當時 中國民을 熱狂시키었다는 것도 추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단재는 오랜 동안 사설을 발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재전집 「연보」에도 “《중화보》에 많은 논설을 집필”하였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의 심금을 울렸을 것이란 사실에서 그 주제도 중국인의 현실과 밀접한 내용들일 것이란 가정이 가능하다. 박의 글도 무려 1년 넘게 실려 있다. 한편 그것은 달리 “지금까지 지나신문사에 있었다”는 보도를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그리고 단재의 글이 중국인을 열광시켰다는 부분이다. 그것은 “洛陽紙貴”를 의미한다.

그 해 하반기에는 邵漂萍과 張季鸞 두 사람이 각각 <申報>와 <新聞報>의 북경주재 특파기자로 거의 같은 시기에 북경에 들어왔다. 그들이 쓴 북경특약통신은 호방한 문필로 袁世凱의 매국 정책을 이어받는 段祺瑞 정부의 암흑한 내막을 투철하게 성찰·규탄을 함으로써 그들의 글은 洛陽紙貴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아주 널리 알려졌다. 邵漂萍은 중국에서 최초의 통신사인 북경신문편역사를 성립했으며, 張季鸞은 북경<中華新報>의 총편집장을 겸임하였다. 1917년에 段祺瑞 정부가 일본과 비밀히 참전·차관(參戰借款) 협의를 체결했다는 내막을 폭로시키는 일로 인해서 張季鸞은 북경신문편역사의 何重勇(직접 등록자)과 함께 체포를 당했다(同年下半年 邵,張兩位幾乎同時入京, 分別任《申報》及《新聞報》的特派駐京記者. 他們所撰寫的“北京特約通訊, 文筆恣肆, 揭露繼袁竊國的段祺瑞軍閥政府的黑暗, 鞭撻入裏, 洛陽紙貴, 同爲國人所傳誦. 邵入京後, 創刊最早的通訊社—北京新聞編譯社;張也兼任北京《中華新報》總編輯. 一九一七年在揭露段祺瑞政府與日方秘密簽訂參戰借款的內幕後, 張與北京新聞編譯社的何重勇(出面登記人)同被逮捕)<sup>31)</sup>

중화신보가 洛陽紙貴되었다는 표현은 장계란전기에서 찾을 수 있다. 장계란은 북경 『중화신보』 창간시 총편집을 맡았던 사람이 아닌가. 그는 그 신문으로 인해 체포되기도 했다. 장계란이 쓴 북경특약통신(그 통신의 핵심적인 것은 『북경중화신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은 洛陽紙貴를 가져왔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달리 중화신보가 현실비판적인 기사로 인해 독자들과의 애호를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서주성의 설명에 따르면, 그것은 장계란의 글 때문일 것이다. 그는 당시 독자들이 그러한 글로 인해 중화신보에 대해 높은 관심과 인지도를 갖게 되었음을 언급했다. 이 신문에 비록 장계란이 총편집을 맡았지만 그가 많은 글을 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논설로 볼 때 ‘소백’으로 발표된 63편 정도이다. 물론 현재 남아 있지 않은 89호까지 장계란의 수많은 논설이 실렸을 것은 분명하지만, <시평>란에 게재된 수많은 글이 <박>의 글이란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달리 박의 글로 중화신보는 독자들과의 애호를 받았다는 말이 가능해진다. <박>은 중화신보에 수많은 현실비판 시평들을 썼으며, 그로 인해 박, 또는 그의 글은 잘 알려지게 되었다는 말이 가능하다. 그것은 달리 신채호로 바꾸어 놓으면 충분한 설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박과 단재는 일치를 위한 필요조건을 갖춘 셈이다. 그렇다면 충분조건도 갖춘 셈인가?

위의 설명에서 아직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것은 먼저 단재가 <矣>로 인해

31) 徐鑄成, 『報人張季鸞先生傳』, 北京:三聯書店, 1986, 66~67면.

집필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박은 <矣>자건 이후에도 여전히, 정간 직전인 9월 22일까지 71차례 글을 썼다. 그렇다면 <의>자 사건 이후 집필 거절 사실과 다르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신문사에 있었다”라는 당시 기사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계속 글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중국신문에 글을 쓴 일을 <뉘우쳤>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화신보에 투고를 거절하고 다른 신문사로 갔다면 그것은 곧 중화신보에 ‘집필을 응락한 것을 뉘우쳤다’는 말과 어긋난다. 그렇다면 “돈을 爲해서 執筆을 應諾한 것이 朝鮮 사람들의 志操를 깨트린 것처럼” 생각했다는 문맥에 담긴 의미이다. 이 문장을 위의 단락과 겹쳐놓고 보면,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강조점은 돈 때문에 글을 쓴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사람들의 지조”를 깨트린 데 있으며, 그것은 곧 글의 내용에 있음을 간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과 단재는 충분히 일치할 수 있으라는 가정이 성립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박>의 글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단재의 글임을 입증하는 것일 터이다. 그것은 가능성을 실재성으로 바꾸는 일일 터이다.

## 6. 중국신문 기자로서의 정체성과 단재의 주체성

박의 글은 언뜻 보면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중국인과 중국신문 기자는 동일성과 차이성을 가질 수 있다. 달리 중국인으로서 중국신문 기자인 경우는 동일성 속에 묶일 수 있지만, 그가 중국인이 아니면서 중국신문 기자일 경우는 차이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신문 기자로서의 단재와 중국신문 기자로서의 단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동일성과 차이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 중국신문 기자 단재와 한국신문 기자 단재는 다를 수밖에 없다.

(가) 吾人固痛恨禍首之不法 而尤嘆中國軍人之名譽 實被此輩喪盡 且足以斷送 中國而有餘也(1917.5.1.)

(나) 今日之中國 亦民主主義軍國主義之決斷也 中國之軍國主義家 竟假反對軍國主義之美名(1917.8.1)

(다) 尾崎行雄氏之攻擊林公使也 謂其目中只有段祺瑞並不見中國四萬萬人民…(1918.1.24)

(라) 日本輿論在今日已顯然反對出兵而獨勸我簽訂出兵細則者何耶而中國政府尙與日本交涉出兵者抑又何耶…(중략)…自日本言已聞既不出兵則無須勸我出兵更無須交涉出兵細則使不然者則是交涉之目的不在出兵而眞在于與我國之軍事權矣(1918.5.14)

(마) 若俄國之黨爭中國固無干涉之意也…(중략)… 欲令日本出兵此與吾華人之所望者蓋適相反也言國民親善者其注意之(1918.5.26)

<박>이 중국신문 기자인 것은 알 수 있지만 그의 글을 통해 그가 과연 중국인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중국인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말이다. 초기 시평에서 <박>은 객관적 제3자의 입장에서 시평을 기술하였다. 그래서 중국을 그냥 ‘중국’으로 표현하였다. 첫 글 (가)「悲蜀難」(1917.5.1)에 ‘중국 군인의 명예’, ‘중국’이나 (나)「宣戰問題」(1917.8.1)에서 ‘금일의 중국’ 등이 그러하다. 이것은 중국인 기자라면 충분히 ‘吾國’, 또는 ‘我國’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것은 (다)「尾崎質問」(1918.1.24)의 ‘中國四萬萬人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중국신문 기자이지만 중국인이 아닐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기

자의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는 글이 있다. (라)「共同出兵可以已矣」(1918.5.14), (마)「必要與活用」(1918.5.26) 같은 글이다. (라)에서 ‘中國政府’와 ‘我國軍事權’이, (마)에서는 ‘中國’과 ‘吾華人’이 충돌을 일으킨다. 사실 후자로만 보면 중국인 기자의 글로 볼 여지를 충분히 갖춘 셈이다.

사실 상당수 <박>의 글은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기자의 국가정체성을 알기 어렵지만, 일부 글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곧 “我數萬萬無辜之男女”·“吾民”·“吾萬里神州”(1918.5.11), “我人民”·“我南北諸公”(1918.5.13), “我國家者”·“我共和民國”·“我國之軍事權”·“我國民”(1918.5.14), “我當局”(1918.5.19), “吾國青年”·“吾四億國民者”·“吾國民”(1918.5.22), “吾等民國市民”·“我中國”(1918.7.23), “吾立國五千年之大民族”·“我朝野”(1918.7.28), “吾中國”(1918.8.1), “我政府”(1918.8.5), “吾國”(1918.8.16) 등이 그러하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이나 ‘당국’, ‘중국’에는 ‘我’나 ‘吾’가 붙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된다. “中國四萬萬人民”과 “吾四億國民者”이 병치되듯이, “吾等民國市民”·“我中國” 등이 나오는 시평의 제목이 「中國人之出兵觀」(1918.7.23)이다. 그것은 <박>의 또 다른 글 「日本出兵宣言」(1918.8.5), 「日本出兵」(1918.8.16)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러한 진취적 기상을 유지하고 학생만의 권위를 소중히 아끼기 바라며 호사의 기룡을 받아들이지 말며, 학업을 폐지하는 책망을 밟지 말고 학생의 분수를 항상 명심하고 구국의 정신을 담금질하면 어제의 행동은 우리국민들을 각성시키는 신기원이 될 것이다. 우리청년들이여, 이를 힘쓸지어다(吾人願學生諸君保持此朝氣護惜此權威 勿受好事之譏 勿蹈廢學之誚 常顧念學生之本分而 時時淬勵此救國之精神則 昨日一舉將成爲吾國民覺醒之一新紀元 嗟我青年其勉之哉, 1918.5.22)

위의 문장에서 보면 ‘吾’(吾人, 吾國民)와 ‘我’(我青年)는 청유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중국신문 기자가 청년들에게 각성을 요구하는 글인데, 자연스럽게 ‘吾’와 ‘我’를 삽입하고 있다. 만일 이것들을 뺀다면 명령과 청유의 시평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글의 앞부분에 나오는 “吾國青年”, “吾四億國民者”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 중국인 기자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중국신문 기자라면 응당 이런 문체를 비껴가기 어려울 것이다.

과연 단재가 ‘我中國’, 또는 ‘吾中國’과 같은 표현을 썼을까 하는 점은 여전히 난제이다. 그런데 『중화신보』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었고, 그것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신문 기자로 있으면서 단재는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졌을까? 즉 국가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중국인의 입장에 서지 않고 중국인을 설득할 마땅한 방법이 있었을까? 중국신문 기자가 중국인들에게 “...해야 한다”, “...하자!”고 설득 및 청유하기 위해서 “우리(중국 국민들), 우리(4억 인민)”라는 문두주어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데 단재는 한국인이었다. 단재는 당시 오랜 망명생활로 인해 생활고와 배고픔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가 중국신문 기자생활을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망명지에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sup>32)</sup>

32) 단재는 한편 동방무정부주의연맹 위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北京 前門內 安福 劉文祥”이라는 중국인으로 행세하였다. 단재가 언제부터 劉文祥으로 지냈는지 현재로선 확인하기 어렵다. 『중화신보』에는 劉文祥과 馬盤의 「兒童好奇本能與教育」(<婦女餘家庭>, 1923.8.7~8.12)이 실려 있는데, <婦女餘家庭> 란은 주로 투고글을

박은 중국신문 기자로 글을 쓴 것이다. 단재가 중국신문 기자로 있었다면, 그는 역시 중국신문 기자로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然我兩國人 不可不親結 既欲親結 不可不開心相見 我願此後朝鮮人 勿以謙卑 圖皮面之  
交際 中國人 勿以古史之妄筆 據作正史而侮於相愛之地也<sup>33)</sup>

夫吾朝鮮人 以無所比數之亡國遺民 乃有隣邦君子 大聲疾呼 願與爲之將伯 安得不踴躍曲  
踊 相率以趨哉 然吾所恨者 吾兩國人 常自居以最親之友 而兩國國情 互相隔膜 是也<sup>34)</sup>

1921년 단재는 잡지 『천고』의 주간을 맡았다. 이 잡지에 이석증이 재정지원을 했다고 한다.<sup>35)</sup> 단재는 「韓漢兩族之宜加親結」(『천고』, 1921.2)에서 “我兩國人” 및 “吾兩國人”이라고 표현했다. 그것은 달리 “我韓中(兩)國人” 및 “吾韓中(兩)國人”을 뜻한다. 이 잡지는 창간사에서 드러나듯 한중 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잡지였다. 단재는 ‘우리(我,吾)’라는 표현 속에 중국인을 포함시켜 중국인에게 우호를 피력했다. 그것은 달리 독자에 따라 글쓰기는 달라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예이다. 단재는 중국신문 기자로서 어떠한 글쓰기를 했을까? <박>의 글에 나타난 정체성의 혼란스러움이 단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단재가 “執筆을 應諾한 것이 朝鮮사람들의 志操를 깨트린 것처럼 가끔 뉘친” 것은 바로 자신의 글, 또는 글쓰기에 대한 반성적 모습을 말할 것이다. 1935년 단재는 일가친척의 보증을 통한 가출옥을 거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인사가 친일파였기 때문이다. 뉘우쳤다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중국신문 기자로서 글을 썼던 사실, 궁극적으로 글의 내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달리 그가 중국신문에 글을 쓴 것은 <돈>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태어난 지 일년밖에 되지 않은 아들과 부인을 귀국시킨 일이나 관음사 절에 들어간 일도 궁극적으로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위체 사건에 연루된 것도 궁극적으로 “무정부주의 동방연맹의 주의 선전잡지 발간을 위한 자금” 때문이 아니었던가.<sup>36)</sup> 한편으로 중국신문에 많은 글을 발표했다면, 상당수가 중국현실과 관련된 글이었을 것이다.

## 7. 중국 문인들과 단재의 교류

단재가 중국에 머문 시기는 수감 기간 7년 9개월을 제외하면 15년에 조금 못 미칠 것이다. 그는 1910년 청도회담 후 북경을 거쳐 러시아에 가서 머물다가 1913년 8월 다시 상해로 왔으며, 이후 1928년 5월 8일에 체포될 때까지 줄곧 중국에서 생활했다. 그 시기 그는 수많은 중국 문인들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들 가운데 이석증, 오치휘, 이대조, 풍옥상, 노신, 주작인, 임병문 등과 교류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러한 교류를 엿볼 수 있

---

실었다. 당시 단재는 상해에 머물고 있었으며, 『가정잡지』를 발간하고 아동교육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 글이 고증으로 이뤄진 논문이며 「二十世紀新國民」의 구성과 같다는 점, 글의 일부가 「小兒教養論」(『신동방』(1935.10, 32~33면), 「惟眞理」(『대한매일신보』(1910.1.7) 등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 등에서 유문상이 단재일 가능성이 있다.

33) 震公, 「韓漢兩族之宜加親結」, 『天鼓』, 北京:天鼓社, 1921.2, 4면.

34) 진공, 위의 글, 4면.

35)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136면.

36) 「국제위체사기문제에 피고 신체호 답변」, 『동아일보』, 1929.2.12.

는 글이 있다.

현재 상해에서 발간되는 월간 잡지 신생활 2월호에는 조선민족에 진가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자 조선사람과 중국사람의 발기로 상해에 「申采浩學社」가 설립되었다고 하는데 이 기관은 학술을 통하여 조선 민족의 진가를 전세계에 소개하는 동시에 조선과 중국 문화의 추진체가 되라는 큰 목적으로서 설립되었다고 한다. 동 학사는 世界社 대표 李石曾 중국 學典館 대표 楊家駱(본문에는 ‘楊衆駱’으로 오식) 상해 생물학연구소 대표 朱洗(朱洗의 오식) 제씨의 후의로서 조선관계의 귀중한 자료 六천여 권의 제공을 바더 세계사 중국학전관과 표리일체가 되어……조선측 대표는 鄭華岩 柳子明씨오 동사는 상해 愚園路 七四九街 五一호에 있다.<sup>37)</sup>

상해에 신채호학사를 설립하였는데, 중국측 인물로 이석증, 양가락, 주세 제씨와 한국측 인물로 정화암, 유자명 등이 발기하였다고 했다. 그런데 정화암이 참여했던 『한국아나키즘 운동사』에서는 중국측 인물로 이석증, 양가락, 朱洗 외에도 ‘오치휘’를 포함시켰는데<sup>38)</sup> 정화암이 신채호학사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오치휘 포함설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치휘는 이석증과 파리그룹 일원으로서 함께 활동하였으며, 이들은 1907년 세계사를 조직하고, 『신세기』를 창간하였으며, 북경민국대학 한중 학생들의 흑기연맹 기관지 『동방잡지』(1925?) 발간에도 후원<sup>39)</sup>을 하는 등 한국인들의 독립활동을 지원했다. 단재가 『천고』(1921)를 발행할 때 이석증이 재정지원을 했다고 한다. 오치휘는 양가락과도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sup>40)</sup>, 그의 『신채호학사』 발기 참여는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 지식인들이 왜 하필 신채호학사에 적극 협력한 것일까? 단재와 중국인의 교류는 주로 1920년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때는 단재에게 중국과 관련한 이렇다 할 문필활동이 없었다. 『천고』의 창간과 국내 신문에의 투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하필 조선학전관을 꾸미면서 거기에 조선민족의 진가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채호학사를 두었을까? 당시 『신생활』에 발표된 내용을 국내의 자유신문 외에도 구국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심지어 미주의 신한민보마저 전하였다. 동아일보에서는 “신채호의 송덕과 한중문화에 끼친 업적을 기림하기”(1946.4.9) 위해,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中韓 문화에 끼친 업적과 그 공헌을 기념하기 위하여”(1946.4.8) 신채호학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석증이나 오치휘, 양가락 등이 신채호학사의 설립에 협력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석증, 오치휘 등은 단재뿐만 아니라 이회영, 유자명 등 한국 아나키스트들과 광범위하게 교류하였으며, 거기에는 정화암도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근대의 인물로서 박은식이나 이회영, 또는 안중근 등이 아닌 『신채호학사』를 선택하게 된 데에는 단순히 유자명과 정화암의 작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단재가 선택된 것은 그가 한중문화에 끼친 업적과 그 공헌이 크게 작용했다는 말이다. 신채호학사에 동참한 중국측 인물 가운데 朱洗를 제외하면 신문, 잡지의 발간 및 저술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단재가

37) 「학술세계를 세계에 과시」, 『자유신문』, 1946.4.8.

38)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94, 393면.

39) 같은 책, 297면.

40) 세계서국은 1946년 양가락이 쓰고 세계학원 중국학전관이 편한 『四庫全書學典』을 출판했는데, 책앞에는 이석증의 「世界學典書例答問」과 오치휘, 채원배의 題辭가 있다.

아나키스트였기에, 단재와의 친밀도 때문에, 또는 정화암, 유자명 등 한국쪽 관계자들과의 친밀도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무엇, 즉 단재가 한중문화에 끼친 업적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일 것이란 이야기이다. 그런데 1920년대 이후 단재가 한중문화에 끼친 이렇다 할 업적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있다면 아나키즘 활동 정도이다. 그렇다면 그것 말고 보다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말이다.

오치휘는 1916년 7월부터 부단히 논설을 실었으며, 1917년 주필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은 1917년부터 1918년까지 북경 중화신보, 상해 중화신보에 수많은 글을 발표했다. 그가 북경 중화신보의 휴간 중에 상해 중화신보에 글을 실게 된 것도 노룡, 장계란뿐만 아니라 당시 주필이었던 오치휘의 도움도 컸을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 오치휘와 박은 더욱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게다가 박의 글이 중국민에게 끼친 영향이 지대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만일 박이 단재라면 단재의 才筆이 중국인에게 알리운 바 되었다거나 중화보가 신 단재의 논설로 성가가 높아졌다는 말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신채호학사」 설립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막연할 따름이다. 곧 ‘한중문화에 끼친 단재의 업적’이란 근거 없는 허구에 불과하게 된다.

## 8. 마무리

한 사람이 잘못 말하기란 쉽다. 그러나 두 사람, 세 사람이 잘못 알기란 어렵다. 그리고 중요한 일에는 어딘가에 흔적이 남게 마련이다. 단재의 중화보 참여설은 정인보, 신석우, 서세충, 원세훈 등의 언급을 통해서, 그리고 당대의 『혁신공보』 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다. 비록 장계란이나 오치휘의 글에서 단재 관련 언급을 찾지는 못했지만 단재의 참여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다. 이석증이 단재가 주필로 있던 『천고』를 후원했다거나 이석증과 오치휘가 한중 학생들의 잡지 『동방잡지』를 후원했다는 사실, 그리고 1946년 그들을 포함하여 몇몇 중국 문인들이 신채호학사 설립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비록 단재가 『천고』를 간행하면서 한중 우호를 외치긴 했지만 실상 남아있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sup>41)</sup> 그러나 <박>과 단재를 동일시했을 때, 단재와 오치휘, 이석증의 관련성도 드러나고 <신채호학사>에 관한 의문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만일, 아니 정녕 단재가 북경 중화보에 글을 썼다면, 그것은 博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博의 국가정체성 문제가 여전히 해명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지만, 단재 주변 사람들의 모든 기억들을 재구해보면 더욱 그러하다. 1919년 단재는 상해로 가서 신석우를 만났을 때 북경 중화보에서 글을 쓴 것을 얘기했을 터이고, 또한 단재가 상해에 오기 전까지 북경에서 중국 신문에 기자생활을 했다는 것을 혁신공보 기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 북경 모신문, 북경 중화보는 『북경중화신보』가 적실하며, 결국 『북경중화신보』에서 논설과 시평을 쓴 博이 신채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博이 쓴 상해 『中華新報』의 평론 17편과 『北京中華新報』의 논설 1편, 시평 101편에 대해 더욱 면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 글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 글들의 내용과 더불어 문체, 사상에 대한 검토가 이

41) 단재는 『천고』에서 「朝鮮獨立及東洋平和」(1921.1), 「韓漢兩族之宜加親結」(1921.2)를 신고, 중국인 鍾樹의 「爭自由的雷音」(1921.1), 天涯恨人の 「論中國有設中韓親友會之必要」(1921.1)를 신기는 했지만, 이로써 충분하지 않다. 『천고』가 7호까지 나왔다고 하나 이는 부정확할 가능성이 크며, 설령 나왔다 하더라도 4호에서 7호까지 중한 관련 글이 얼마나 더 많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단재가 중한 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1910년대 중화보 외에 달리 더 많은 자료를 얻기는 어렵다.

뤄져야 한다.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박>과 단재의 동일성 여부를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차후 연구를 기대한다.

주제어 : 중국신문, 중화보, 중화신보, 북경중화신보, 북경일보, 천고, 단재, 신채호, 논설, 자료 발굴

#### 참고문헌

『중화신보』, 『북경중화신보』, 『천고』, 『혁신공보』, 『동아일보』, 『자유신문』

김병민, 『신채호문학연구』, 아침, 1988.

김삼웅, 『단재신채호평전』, 시대와창, 2005.

김영호, 「단재의 생애와 활동」, 『나라사랑』 3, 1971.

단재신채호전집편찬위원회, 『단재신채호전집』(1~9), 한국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7~2008.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아나키즘운동사』, 형설출판사, 1994.

徐鑄成, 『報人張季鸞先生傳』, 北京:三聯書店, 1986.

신용하, 『신채호의 사회사상 연구』, 한길사, 1984.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국학자료원, 1998.

유광열, 『기자 반 세기』, 서문당, 1968.

임중빈, 『선각자 단재 신채호』, 충청출판사, 1986.

陳紀滢, 『報人張季鸞』, 臺北:文友出版社, 1957.

최옥산, 「문학자 단재 신채호론」, 인하대 박사논문, 2003.

허룡구, 「결출한 조선족 학자 신채호」, 『조선족 100년 사화』, 료녕인민출판사, 1985.

####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중국 신문 소재 단재의 논설을 발굴하려고 하였다. 신석우는 "大統領에 馮國璋, 國務總理에 段祺瑞가 있어 治政할 때" 단재가 중화보에 논설을 썼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1917년 7월 1일부터 1918년 10월 10일 사이가 된다. 당시 북경에서는 중화신보가 발간되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북경 중화보라 일컬었다. 신석우는 또 하나 <矣>자를 오자 내어 문제가 되었다고 했다. 1918년 5월 19일 「政府之辨明」에는 “矣”자를 “一”로 오자하였으며, 다음날 신문에 정정보도가 실린다. 그 내용은 신석우의 언급과 정확히 일치한다. 단재가 북경에서 중국신문사에 있었다는 것은 당시 신문 기사에서도 발견이 되고, 또한 당시 여러 知友들의 회고에서도 나온다. 그렇다면 당시의 정황이나 여러 사실들을 고려할 때 <博>이라는 필명은 신채호의 또 다른 필명으로 보인다. 박의 글은 상해 『중화신보』에 평론 17편, 『북경중화신보』에 논설 1편, 시평 101편 등 총 119편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은 모두 단재의 글로 보인다. 이 글들을 단재의 글로 간주할 때 북경에서 단재의 문필 및 중국 문인들과의 교류 활동, 그리고 그들의 단재 기념사업 등을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발견된 119편의 글과 단재 글의 문제, 사상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마쳤다.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 <박>과 단재의 동일성 여부를 판가름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Chinese Newspaper, Tson Hua Newspaper, Tson Hua Sin Pao, Beijing Tson Hua Sin Pao, Beijing Newspaper, Chiunko, Danjae, Shin Chae-ho, Editorial comments, Discovery of Shin Chae-ho's literary texts.